

九〇一年에 古代住宅은 모아 놓인 Open Air Museum에 開設하였다.

박물관은 대체로 七個部分으로 大別되는데 앞에 말한 丁抹民俗, 古代住宅 등의 두개의 커다란 코렉온과 丁抹과 全世界의 銅錢과 勳章을 모은 부분과 石器 青銅器時代資料 인디언들 등 原始部族의 資料, 全世界의 民俗資料와 中近東, 東南亞 極東의 民俗資料 등이고 그 중 東洋關係資料(특히 民俗資料)는 歐州에서도 有數한 코렉온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 한국실설치도 이 파트에 속하는 것이다. 東洋關係資料는 博物館 西館(東側은 丁抹民俗, 石器 中世의 繪畫 等陳列) 二, 三層에 進열하여 놓았는데 그 중 三層은 入口로부터 아라비아, 이라크, 몽고 중국(KINA)라고 부름) 日本, 韓國, 印度, 印度支那, 泰國, 버마, 캄보디아 등 거의 빠진 나라가 없을만치 차례로 말라되어 있는데 中國과 우리 것의 경우는 간혹 석인 물건도 있어 중국진열장 속에 高麗銅鏡이 있기도 하는 珍景이 있는데서 로 몰라 그렇지 다른 나라 진열장 속에 엉뚱한 나라의 것이 들어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것은 그만큼 關係資料를 隨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슬며시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韓國關係資料中 一九四一年에 購入하였다고 하는 「箕山」落款 國俗畫八〇餘幅은 注目된다. 一〇〇餘年前의 生活狀態를 묘사한 것이라는 설명문이 있는 외에 箕山이 何處何時人인지 尙장 모르겠어서 구체적인 紹介는 할 수 없으나 그림마다(없는 것도 있지만) 무슨 일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諺文(?)으로 설명을 써 놓아서 대단히 흥미 있는데 그림 자체는 그리 秀筆이라고는 생각되어 지지 않는다. 최근 東獨에서 이에 대한 講帖이 發刊되었다고 하며 우리나라의 四六倍版크기의 洋裝本學界에 소개된지 오래다고 한다. 複寫하는 재주가 있었으면 하고 문쪽에 가련스럽게 부쳐져 있는 그림을 아낀 저녁으로 쳐다보고 있다. 아직 未정리상태로 倉庫 속에 있지만 최근 귀국한 丁抹人의 사의 舶來品(木工藝, 陶磁器) 五〇餘點이 있어 조사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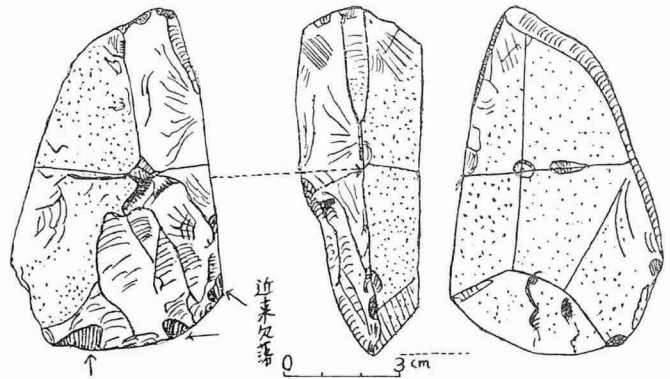
— 第七卷 第十二號 通卷七十七號 —

淳昌 三村里 出土의 一打製石斧

金 元 龍

今年 三月初에 文理大 地質學科의 一學生이 全北 淳昌地方 地質調査時

第七卷 第十二號 通卷七十七號



에 採集하였다는 打製石斧를 가지 고 왔다. 이 石斧의 正確한 出土地는 淳昌郡 豊山面 三村里 송두部落이며 여기 넓은 溪川에 面한 北向의 採集하였다고 한다. 三月十七日 本人이 現地를 踏査한 바에 依하면 이 丘山은 石灰岩이 風化한 古い 朱土이며 山地表에서는 없었으나 基部の 浸蝕堆積土中에서 角閃黑雲母片磨石製의 扁平單双石斧(磨製) 一개를 採集할 수 있었다.

問題의 打製石斧는 全長 八·六cm 黑色珪長岩製인데 表面은 酸化해서 灰白色膜으로 덮혀있다. 母石은 한 쪽에 磨研한 것처럼 扁平하며 또 平行하는 세 개의 自然劈開面과 그 基部에서 斜雙을 形成하 듯이 斜行 하는 亦是 自然劈開面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 쪽은 不規則하게 도두 라진 돌이며 이 母石의 頂部를 一側으로부터 打擊을 加해 比較的의 扁平 背部를 만들었고 다시 不規則하게 도두라진 側面만에 正確한 打整을 加해서 單雙비슷한 兩双石斧를 만들고 있다. 특히 그 打整은 주로 雙部 에만 이루어진 것인데 剝離面이 좁고 길며 同心圓처럼 橫走하는 所謂 Conchoidal Ripples가 歷然해서 間接打擊法이나 木 또는 骨槌를 使用해서 剝離를 行한 것이라고 보여 진다.

나는 이 地區에서 좀더 많은 珪長岩石器의 發見을 期待했었으나 더 찾지 못했고 송두部落 路上에서 작은 珪長岩片을 採集했을 뿐이다. 總括해서 이 石斧는 原石을 잘 利用해서 最少限의 正確한 打整을 加하여 만든 것이며 그 材料나 形態 또 製作法이 모두 特異한 것이라 하겠다.

珪長岩製의 公州石壯里의 刃器 中에서 實見한 바 있으며 石材의 性質上 打製石器 特히 Flake tool에 適當한 것이다. 그러나 淳昌의 이 打製石斧의 時代는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時代는 여기서 採集된 前記 磨製單刃石斧의 그것 卽 石器時代도 末期인 金屬使用期에 屬하는 것이라 고 하겠다. 이것은 비슷한 剝離法(Leaving)이 大邱地區의 頁岩製有溝石斧에서도 보이고 있는 點에서 더욱 그러하며 그러한 剝離法이 磨製石器에 있어서도 第一次 整形에서 實施된 것을 말해 주고 있다.
別로 重要な 것이 못될지 모르나 將次의 더 많은 資料出現을 期待하는 마음에서 簡單히 紹介하여 두는 바이다.

百濟의 長刃과 馬具類의 新例

洪 思 俊

지난 六月에 連山面에 居住하는 金光世氏가 五月下旬 同面 表井里 시루峰後 北山城에서 三〇〇m地點의 長霖으로 挖겨진 地下古墳에서 收獲하였다는 百濟時代의 武具 및 馬具 等屬을(扶餘博物館所藏) 持參하였다. 지금까지 未發見된 比較的 原形을 알아 볼 수 있는 遺物들이므로 紹介하여둔다. 그 種類는 아래와 같다.

- 1, 馬鐸 一雙 青銅製 完全
 - 2, 馬轡(말자갈) 一括 鐵製
 - 3, 鐙子 一雙 鐵製
 - 4, 鐵鏃 一括
 - 5, 鎗 二柄 鐵製
 - 6, 長刃 二 門銷附一
 - 7, 坩 一
 - 8, 단지 一 蓋付 蓋一
- 以上에서 特히 長刃과 馬鐸에 對해서 一言을 加하고자 한다.

長 刃 (1)

圖面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칼날이 칼집에 넣어 있는데 刃柄上·下端을 銀마구리하였고 손(手)에 잡는 部分은 木心에 銀帶를 감았고 이 銀帶에 는 橫으로 凹凸線이 있어서 손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칼집 末端에도 亦是 銀마구리를 하여 칼집은 칼날과 附着하여 腐敗하여 서 그 原形을 識別할 수 없다.

馬 鐸 一 雙

青銅製 馬鐸의 形態는 늑이 곱게 쓸어 있으나 原形을 完全히 保存되어 있다. 鐸內에는 鐵丸球가 들어 있어서 지금도 그 馬鐸소리를 들을 수 있다.

馬鐸外表에는 中央橫凸帶를 上下로 區分하여서 上部에는 簡略한 蓮花紋(陽刻)이 左右側에 各三瓣씩 裝飾되고 下部에는 鬼面이 亦是 左右側에 陽刻하였으되 口形을 馬鐸唇으로 代用하여져 있다. 勿論 馬頭에 달을 수 있도록 小孔이 馬鐸上部에 別途로 있다. 이 馬鐸은 壓延하여 만들지 않고 左右陽刻文을 合縫시킨 듯 하다. 縱長 七cm 橫長 七cm

天安 三臺里 寺址의 磨崖佛立佛

李 殷 昌

天安郡 豐歲面 三臺里 寺址의 磨崖佛立像을 調査한 바 있어 이에 紹介한다.

1, 寺址

豐歲面 所在地(豐歲縣 古基^①) 西便으로 泰鶴山이 있어 그 山中腹에 傳稱 海仙庵^②이라 하는 廢寺址가 있다. 이 寺址에는 法堂址로 推定되는 築臺와 高麗朝 所作으로 推定되는 石塔屋蓋石片이 殘在하고 一帶에는 瓦片이 散落되어 있다. 그리고 寺址에서 約百m쯤 東北地點인